

# 자본주의《벤처》기업의 본질과 특징

차 현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경제를 잘 알아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더 잘 알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발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더 많은 리운을 벌기 위한 자본가들의 책동은 자본주의적기업 관리운영방법에서뿐아니라 기업관리형태에서도 나타나고있다. 현시기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은 지난 시기와 다른 새로운 기업관리형태인 《벤처》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벤처》기업은 정보산업발전의 첫 시기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한 형태이다.

일정한 사회경제적조건이 지어지면 그에 적응한 경제방법들이 생겨나게 된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노우—하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화하여 운영하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소프트웨어부문과 생물공학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60년대말에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출현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으나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다른 기업들과 구별하여 《모험가들이 운영하는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벤처》기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후 1990년대에 와서 《벤처》기업은 발족초기와는 달리 경영목적과 운영에서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용어도 단순히 《모험기업》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지금 자본주의기업관리리론에서는 《벤

처》기업을 독창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또는 봉사, 경영체계를 개발도입하여 많은 새로운 분야에 파감히 뚫고들어가 고유한 시장범위를 확보하면서 급속히 성장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을 간단히 《벤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가적 중소기업》 또는 《기술지향적소기업》, 《연구개발형소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벤처》기업의 출현은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정보과학기술은 정보산업시대 경제발전의 기술적기초이다. 정보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정보기술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그 위력에 의거하여 정보산업을 중추로 하는 경제의 높은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보과학기술발전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국가적힘을 집중하고있는것은 정보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력을 마련하고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정보산업시대에 세계적으로 정보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고있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것은 국가적인 정보과학기술발전전략을 세우고 전망성있게 추진시키면서 재정, 금융, 가격 등과 관련한 일련의 우대 및 장려제도의 실시, 정보과학기술발전거점의 창설, 나라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것이다.

정보산업시대를 안아온 정보과학기술은 연구개발력사가 오래지 않으며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자들이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어려운 난관과 실패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하여 정보과학

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인것으로 하여 연구 사업은 성공의 담보가 적고 위험성이 많다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정보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자면 국가가 적극적인 장려정책으로 이 분야의 연구기관들과 기업체들이 안정된 조건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정보산업시대의 발전과 함께 조성된 이러한 조건은 최신과학기술을 소유한 모험적인 젊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일확천금을 벌여보려는 야욕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배경 밑에서 처음으로 기업활동에 발을 들여놓는 새 세대 기업인들에 의하여 《벤처》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벤처》기업가들은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자본주의적정보과학기술에 기초한 정보기술관련제품의 개발과 시장출품이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정보기술관련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데 정보과학기술은 지난 시기의 과학기술과는 다른 첨단과학기술인것으로 하여 그 개발과 도입에서 기업가들은 성공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정보과학기술에 의거한 기업을 창설하여 과연 전통산업분야의 기업들과의 리윤경쟁에서 이길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다. 뿐만아니라 정보과학기술은 발전속도가 비상이 빨라 갱신주기가 짧으므로 기업의 구조적, 기술적갱신을 따라세울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기업가들이 이 분야에 선풍 손을 대기 꺼려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전통산업분야의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확고한 지위에 안심하면서 정보기술분야의 기업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정보기술분야의 기업창설과 운영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정보기술관련분야에는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

그것은 이 분야의 산업이 첨단기술집약형 산업인것으로 하여 원료, 자재가 적게 들고 제품이 크지 않으면서도 제품의 시장 판매값이 높아 큰 리윤을 얻을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많은 투자없이 중소기업의 형태로 운영할수 있게 하며 특히 육체로동보다 지능로동을 하는 적은 종업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업활동을 벌릴수 있게 한다는것이였다.

새로 설립된 《벤처》기업의 초행길에는 자금난, 경험부족 등의 여러가지 난관으로 하여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지만 점차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가면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성공한 적지 않은 《벤처》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은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벤처》기업의 특징은 우선 독립적인 중소기업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반중소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대독점들의 하청기업으로 조직운영되고있다. 특히 기업의 계열화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자기 계열의 독점체에 부분품이나 보조자재 등을 생산 공급하는 하청기업으로서 생산과 판매, 기술면에서 대기업에 철저히 예속되어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자체의 기업전략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있다.

《벤처》기업의 특징은 또한 독자적인 기술이나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새 제품을 개발하며 시장을 개척해나간다는데 있다.

《벤처》기업들은 부피가 작고 아직 시장에 출품되지 않은 새 제품들을 자체로 개발하므로 대기업들이 차지하고있는 기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제품을 실현한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나가는 모험가,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소유자들이며 대다수가 높은 학력의 소유자로서 특허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연구개발자로 되고있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의 특징은 또한 기업설립년한이 짧고 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으며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는것으로 하여 위험도가 높다는데 있다.

《벤처》기업은 정보산업시대에 새로 출현한 기업으로서 그 년한이 짧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높은 학력이나 앞선 기술의 소유자라고 하지만 자금력이 약하고 기업운영경험이 부족하므로 경영면에서 불안하고 성공의 전망을 헤아리기 어렵다. 《벤처》기업들은 일반금융기관이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경영자금을 받지 못하고 《벤처》자본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금융봉사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벤처》기업은 그 특징으로 하여 자기 발전에서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왔다. 《벤처》기업은 발생한 첫 시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특히 앞선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모험적으로 돈을 벌려는 의욕을 가진 젊은 기업가들에게 커다란 유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초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에서 《벤처》바람이 일어나 《벤처》기업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 첫번째 바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벤처》기업의 제한성과 시대적조건의 미숙성으로 하여 얼마후 저조해지고말았다. 기업경험이 어리고 성장의욕에 사로잡혀있던 《벤처》기업가들이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고려없이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던 나머지 많은 기업들이 파산되고 말았다.

그후 1980년대에 들어와 정보과학기술과 함께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벤처》기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급

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벤처》바람은 21세기에까지 이어지고있으며 특히 정보 및 통신과 관련된 《네트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제품이나 봉사가 끊임없이 개발되었으며 대기업들이 이러한 급속한 기술발전에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데 있었다.

《벤처》기업이 확대발전하는것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벤처》기업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미화하고있다. 특히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을 다그치고 산업구조를 지식집약형산업으로 전환시켜 장기적인 시장경쟁력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하고있다.

현대부르조아경제리론의 하나인 《혁신리론》의 창시자 슈페터는 《벤처》기업에 의하여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고 《변영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궤변까지 조작하였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자본주의경제의 침체를 절대로 극복할수 없다.

《벤처》기업이 급속히 확대보급되고있지만 대독점기업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으며 모두 성공하여 끊임없는 성장을 이룩한것도 아니다. 초기에 대독점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독점기업들이 손대지 않은 분야에 전개된 《벤처》기업들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독점들과의 경쟁에 말려들게 되었다. 대독점들은 자금력과 기술면에서 《벤처》기업들보다 결정적으로 우세하므로 그들과의 경쟁에서 《벤처》기업들은 허점을 드러내고 결국 파산되거나 대기업에 흡수되고있다.

《벤처》기업은 자금조성의 측면에서 매우 미약하기때문에 강력한 《벤처》자본의 후원이 없이는 기업을 지탱해나가기 어렵다. 거대은행들은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

---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에 대부분을 주는 것을 꺼려하고있다. 《벤처》기업들에 자본을 대주는 금융업체들은 대부자금원천이 많지 못하여 늘어나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은 물론 신흥공업국들에서 《벤처》기업이 성행하고있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취약성으로 하여 난관에 부딪쳐 적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근근히 기업을 유지하거나 파산 몰락하고있다.

《벤처》기업들은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장성을 가져오게 하는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그로 인한 기업의 끊임없는 파산으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관리형태를 조작하고 운영하고있지만 자본주의경제위기의 파국적상태를 결코 해소할수 없다. 자본주의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 어떤 기업관리형식이나 방법, 형태를 고안해내도 멸망에로 치닫고있는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없으며 자본주의멸망을 멈춰세울수 없다. 자본주의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본주의제도가 멸망하게 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